

11-27 (통권 제 497호)

2011. 8. 9.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VIP REPORT



■ 스마트 세상, 우리는 과연 얼마나 스마트해졌나?

: 스마트지수 점수 및 특징



現代經濟研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장후석,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234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 (02-2072-62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스마트 세상, 우리는 과연 얼마나 스마트해졌나? : 스마트지수 점수 및 특징

Executive Summary i

1. 스마트지수의 필요성 대두 1

2. 스마트지수 점수 및 특징 4

3. 시사점 10

■ HRI 경제 지표 16

스마트지수의 필요성 대두	
국내 스마트화에 대한 객관적 점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1500만 가입 등 스마트기기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각종 기기에 스마트를 네이밍해야 소비자의 관심을 받는 소위 스마트 시대가 도래함 · 그러나 스마트 세상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변화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가 부족함 · 따라서 실제 스마트기기 활용 현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스마트기기의 활용 및 그에 따른 생활의 변화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스마트지수의 정의 및 점수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지수란 각 개인들의 스마트화 수준, 즉 ①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②스마트 서비스를 활용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음 · 이는 스마트기기 보유자들이 어떻게 네트워크 접속하고 기기 이용 준비를 하고 있으며, 스마트서비스 활용을 통해 어떻게 생활이 변화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현재 스마트지수는 평균 47.5점(100점 기준)으로 나타남

스마트지수 점수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스마트기기는 급증하고 있지만, 기기 활용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말까지 스마트폰 2500만 가입이 추정되는 등 기기 보유자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서비스 활용 부문은 15.8점(50점 기준)에 불과해 실제 생활에서 개인들의 적절한 스마트기기 활용이 미흡함을 알 수 있음 - 둘째, 스마트서비스 활용은 개인적 인맥관리에만 치중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기활용 자체도 부족한데, 그나마 인맥관리 등 개인적인 교류 활동에 치중되고 있어 스마트기기를 통해 기존 IT기기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놓치고 있음 · 특히 스마트기기로 인해 사회적 이슈 참여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되지만, 실질적으로 평균 점수도 낮고 관련 스마트서비스 비이용자 역시 약 60%나 차지함 - 셋째, 애플리케이션은 많지만, 실제 활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은 극히 미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활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개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총 어플수 점수도 약 2.5점으로 그다지 많지 않고, 특히 유료 어플에 대한 점수는 매우 낮게 나타나 스마트기기의 핵심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서비스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추정됨 - 넷째, 스마트 디바이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지수가 대졸보다는 고졸이하에서,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낮게 나타나며,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높고, 지방(대구경북권 / 광주전라권)에서 낮으며,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높고, 자영업자/주부의 점수가 매우 낮아 계층에 따른 편차가 심한 편임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해 스마트워크, 스마트민원 등 정부 차원에서 정책 프로그램 선도 ②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관련 분야의 스마트서비스 활용을 위한 보안기술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 ③ 활용성 높은 애플리케이션 제작 활성화를 위해 기존 일인기업 육성 정책과 조화 ④ 정부/업계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디바이드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스마트디바이드' 해소 방안과 연계 	

■ 스마트지수의 필요성 대두

스마트폰 1500만 가입 등 스마트기기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각종 기기에 스마트를 네이밍해야 소비자의 관심을 받는 소위 스마트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스마트 세상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기기의 활용을 통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가 부족하다. 따라서 실제 스마트기기 활용 현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스마트기기의 활용 및 그에 따른 생활의 변화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스마트지수란 각 개인들의 스마트화 수준, 즉 ①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②스마트 서비스를 활용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스마트기기 보유자들이 어떻게 네트워크 접속하고 기기 이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스마트서비스 활용을 통해 어떻게 생활이 변화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현재 스마트지수 평균점수는 47.5점(100점 기준)으로 나타났다

■ 스마트지수 점수 및 특징

첫째, 스마트기기는 급증하고 있지만 기기의 활용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1년 말까지 스마트폰 2500만 가입이 추정되는 등 기기 보유자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서비스 활용 부문은 15.8점(50점 기준)에 불과해 실제 생활에서 개인들의 적절한 스마트기기 활용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스마트서비스 활용이 개인적인 인맥관리에만 치중되고 있다. 기기활용 자체도 부족한데, 그나마 인맥관리 등 개인적인 교류 활동에 치중되고 있어 스마트기기를 통해 기존 IT기기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이슈에 적극 참여하는 개인들의 영향력이 훨씬 커지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 현안 참여 부문의 평균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애플리케이션은 넘쳐나지만, 실제 활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은 극히 미미하다. 실제 활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개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총 어플수 점수도 약 2.5점으로 그다지 많지 않고, 특히 유료 어플 수는 매우 낮게 나타나 스마트기기의 핵심인 애플리케이션 활용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스마트 디바이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지수 점수를 살펴보면, 교육수준별로는 대졸보다는 고졸이 하가, 소득별로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낮은 편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높고, 지방(대구경북권/광주전라권)이 낮으며,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높고, 자영업자/주부의 점수가 매우 낮은 편이다.

■ 시사점

첫째, 스마트기기의 활용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워크, 스마트민원 등의 프로그램을 선도해야 한다. **둘째,** 사회현안 참여나 경제 활동 등 특정 분야의 관련 스마트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활용성 높은 애플리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일인기업 육성 정책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넷째,** 정부/업계 등이 참여한 디지털디바이드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스마트디바이드 해소 방안과 연계해야 한다

1. 스마트지수의 필요성 대두

○ 스마트지수의 필요성

- 스마트폰 1500만 가입 등 스마트기기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각종 기기에 스마트를 네이밍해야 소비자의 관심을 받는 소위 스마트 시대가 도래함
 - 이를 반영하듯 스마트기기의 활용을 통해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최근 많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외관상 화려한 스마트 세상의 도래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기기의 활용을 통해 우리 생활이 과연 어느 정도 편리해졌으며, 또한 유의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일반국민들의 실제 스마트기기 활용 현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스마트기기의 활용 및 그에 따라 생활의 변화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 그동안 스마트기기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기존 의견들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몇몇 사례를 통한 주관적 주장들이 많았음
 - 또한, 국내 스마트화의 진행이 단순한 스마트기기의 양적 확산에서 스마트기기의 활용에 대한 질적 성숙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현 상황도 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구 요구를 증가시킴
- 기존 정보화지수는 스마트 관련 새로운 지표 도입이 필요한 상황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함
 -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화지수를 측정함으로써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실행하는데 도움을 받았음
 - 그러나, 기존 정보화지수를 활용하여 스마트 관련 정보를 하나의 변수로서

포함시키기에는 사회의 스마트화가 너무 광범위하고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또한 기존 정보화지수처럼 단순하게 기기 공급 대수의 증가로 스마트지수를 평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음
 - 스마트기기는, 보유 자체로 그 효용성을 가지는 휴대폰 등 기존 IT기기에 비해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는 지에 따라 기기의 효용 가치가 달라지는 특징을 지녔기 때문임
- 따라서 국내 스마트화 진행 정도에 대해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스마트지수가 필요함
 - 새롭게 만들어질 스마트지수는 기기 관점에서 스마트기기의 종류나 공급 대수의 증가보다는 서비스 활용 관점에서, 스마트서비스를 통해 생활 속에서 스마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이는 기존 정보화지수와 비교할 때, 스마트기기의 하드웨어적 측면 못지않게 기기를 얼마나, 제대로 활용했는지의 소프트웨어적 측면도 주요 변수로 평가에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함
- 본고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질 스마트지수의 정의 및 구성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설문조사를 통한 실제적인 스마트지수의 점수 도출하도록 함
 - 또한 스마트지수 점수를 구성하는 각 항목별 특징과 계층별 점수 현황 분석을 통해 스마트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 스마트지수의 정의 및 구성 항목

- ‘스마트지수’는 각 개인들의 스마트화 수준, 즉 ①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②스마트 서비스를 활용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음¹⁾

1) 현대경제연구원 (2011) “스마트 혁명이 가져온 충격과 우리의 대응”.

- 이는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네트워크 접속하고 스마트기기 이용 준비를 하고 있으며, 스마트서비스 활용을 통해 어떻게 생활이 변화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임
 - 스마트지수 측정은 각 개인 생활의 스마트화가 초점으로, 스마트 기기의 활용 여부에 따라 얼마나 생활이 편리하게 혹은 유익하게 향상되었는지가 평가에 포함되어야 함
- **(스마트기기의 이용)** 스마트폰 등 기존 전자제품에 스마트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기기의 이용은 스마트화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음
- 스마트 기기는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다른 기기와의 통신을 위해 네트워크(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뜻함²⁾
 - 스마트폰, 태블릿, TV, 가전제품, 자동차, 홈·빌딩·도시, 스마트그리드 전력, 의료·헬스케어 등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 기기 네트워크는 스마트화의 물적 토대로 작용함
 - 이러한 스마트기기 이용은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제약 없이 지속적인 상호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부문과 기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스마트서비스 활용)** 스마트기기의 이동성과 네트워크의 연결성은 LBS(위치기반서비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기존에는 어려웠던 서비스를 현실화함
- 특히, 개방형 네트워크 사회 건설을 앞당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활용은 스마트화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임
 - 결국, 일반인들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기존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불가능했던 일들에 대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각 부문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2) Vasseur & Dunkels, 2010.

- (구성 항목) 스마트지수를 구성하는 각 영역은 크게 기기(제품) 관점과 서비스 관점으로 구분됨
 - ‘스마트’ 개념을 근거로 ① 기기 관점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접근성과 수용성
 - ② 서비스 관점의 스마트서비스 활용성에 대해 측정하여 점수화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 지수를 구성함
 - 기기 부문은 3G네트워크 접근성, WIFI 접근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능력/개수 /이용 시간 등으로 구성되며, 서비스 부문은 경제활동, 사회현안참여, 문화 및정보획득, 인맥관리, LBS활용 부문 등으로 구성됨(별첨 참조)
 - 평가 대상의 특성에 따라 기업, 국가 등 다양한 수준으로 측정 범위를 확장 할 수 있음³⁾

2. 스마트지수 점수 및 특징

○ 설문 개요

-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활용 형태를 살펴보았음
 - 조사기간은 2011년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3주일간이었고, 전화설문으로 표본 오차는 95%(±3.1)임

구분	내 용
조사 대상	전국 성인남녀 1002명
조사 기간	2011.6.20 - 2011.7.8(3주일 간)
조사 방법	전화 설문
표본 오차	95% ±3.1%

3) 기업 스마트지수는 각 기업의 스마트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기업별 조사를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국가 스마트지수는 개인 스마트지수와 기업 스마트지수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스마트 인프라 및 기초통계를 가중 평균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음

○ 스마트기기는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의 스마트기기 활용은 이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음

- 2011년 말까지 스마트폰 2500만 가입이 추정되는 등 기기 보유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스마트지수 점수 분포로 볼 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스마트한 생활은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스마트지수를 도출한 결과 현재 스마트기기를 보유자의 평균 스마트지수 총점은 47.5점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기 관점인 네트워크 접근성과 애플리케이션 수용성 부문은 31.7점이고 서비스 관점인 스마트서비스 활용 부문은 15.8점으로 나타나 서비스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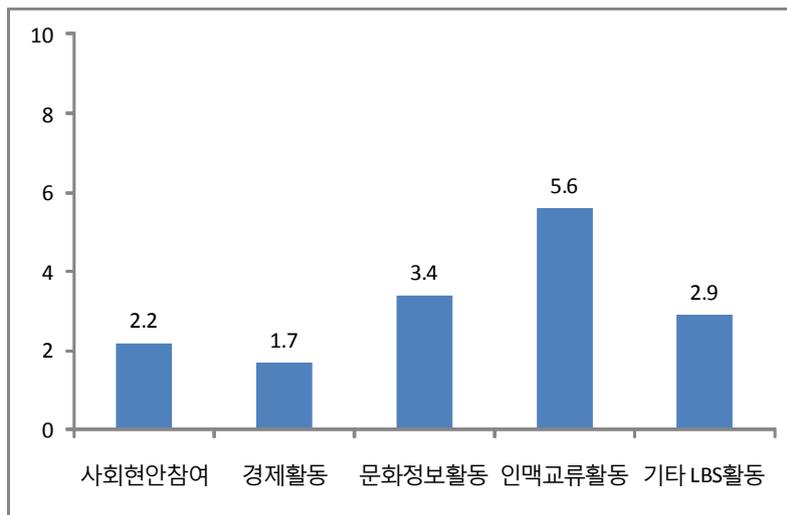
구분	세부 항목		스마트지수 점수	
	내용	기준점수		
기기 관점(50)	3G 네트워크 접근성	10	8.4	소계: 31.7
	WIFI 네트워크 접근성	10	5.0	
	애플리케이션 설치 능력	10	8.0	
	애플리케이션 개수	10	3.6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간	10	6.7	
서비스 관점(50)	경제적 활동 부문	10	1.7	소계: 15.8
	정치·사회 참여 부문	10	2.2	
	문화 및 정보 획득 부문	10	3.4	
	인맥관리 등 교류 부문	10	5.6	
	LBS 활용 부문	10	2.9	
합 계		100	47.5	

자료)현대경제연구원 2011년 설문조사

○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개인들의 사회현안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평균 점수도 낮고 **비이용자** 수도 절대적으로 많음

- 스마트기기 활용 자체도 부족한데 그나마 인맥관리 등 개인적인 교류 활동에 치중(5.6점)되고 있어 스마트기기를 통해, 기존 IT기기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놓치고 있음(사회현안참여 2.2점, 경제활동 1.7점 등)
 -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인맥관리 등 개인적 교류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약 20%에 불과한 반면, 사회적 이슈 제기에 적극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약 60%,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약 50%에 이룸
 - 특히, 60%에 가까운 사람들은 사회 현안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바일 디바이드에 대한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도 스마트서비스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의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함
 - 사회현안 참여 측면에서 최근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참여 제약 등 일반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규제하는 장애물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스마트지수 점수를 낮추는데 일조한 것으로 판단됨

<스마트서비스 항목별 스마트지수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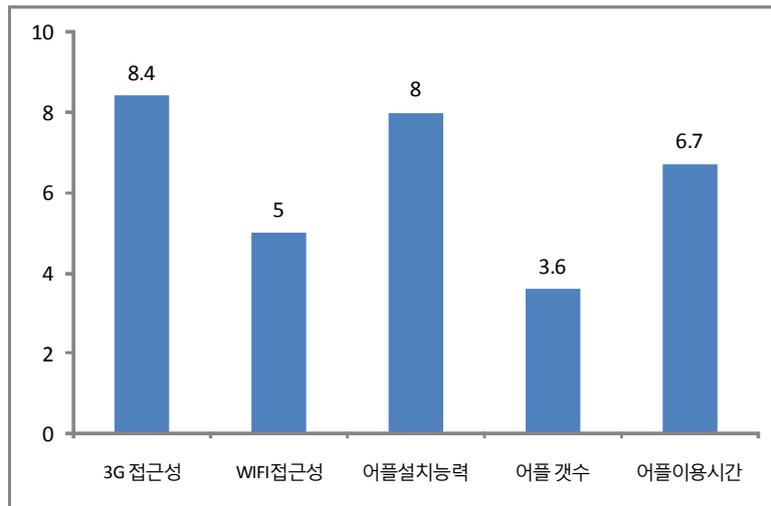
주) 항목별 기준점수는 10점임
 자료)현대경제연구원 2011년 설문조사

- 또한, 이번 조사에서 인터넷뱅킹이나 주식거래 등 경제 활동 부문 점수도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스마트기기의 보안성 문제에 대한 언론의 이슈 제기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됨
 - LBS 관련 부문은 2.9점으로 인맥관리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지만, 스마트기기만의 중요한 활용 기능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지수 점수상 향후 좀 더 많은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애플리케이션은 시장에 넘쳐나지만,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아직까지는 미미함

- 앱스토어의 애플리케이션이 약 40만 개, 안드로이드 마켓 역시 약 30만개가 넘는 시장 상황에서 개인들이 실제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개수는 극히 일부임
 - 실제 활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개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총 어플수 점수는 약 2.5점(5점 기준)으로 그다지 높지 않고, 특히 유료 어플 수는 약 1.1점(5점 기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스마트기기 활용의 핵심인 애플리케이션 준비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추정됨

<기기 관점 세부 항목별 스마트지수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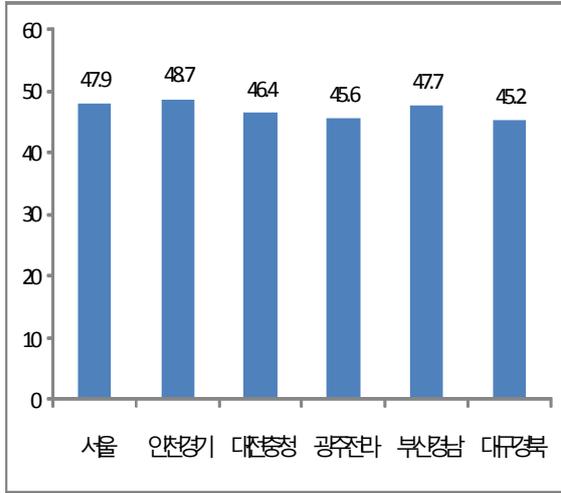
주) 항목별 기준점수는 10점임
 자료)현대경제연구원 2011년 설문조사

- 네트워크 접근성의 측면에서 볼 때 3G망이나 WIFI 접근성 점수는 높게 나타나 개인들의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어플설치 능력 점수 역시 8.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 계층별로 점수 편차를 보이므로 이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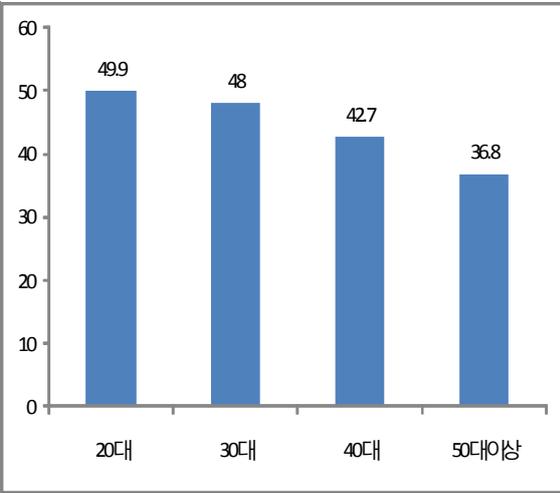
○ 모바일 디바이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음

- 정보화시대에 나타났던 계층간의 단절을 뜻하는 모바일 디바이드의 부작용이 스마트시대에도 여전히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교육수준별로는 대졸보다는 고졸이하가, 소득별로는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낮은 편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높고, 지방(대구경북권/광주전라권)이 낮으며,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높고, 자영업자/주부의 점수가 매우 낮은 편임
- **(지역별 및 연령별)** 수도권의 스마트지수 점수가 높고 지방(대구경북권)의 점수가 가장 낮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스마트지수 점수가 낮음
 -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48.7점), 서울(47.9점), 부산경남권(47.7점)으로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고, 광주전라권(45.6점), 대구경북권(45.2점), 대전충청권(46.4점)으로 평균보다 다소 낮은 편임
 - 광주전라권의 점수가 낮은 이유는 스마트서비스, 특히 정치사회적 참여 부문에서 점수가 낮은 것이 주요 이유임
 - 연령별로는, 20대가 49.9점으로 50대이상의 36.8점보다 10점 이상 높아 50대이상의 스마트지수가 극히 저조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기기 관점, 특히 애플리케이션 수용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기 때문임

<지역별 스마트지수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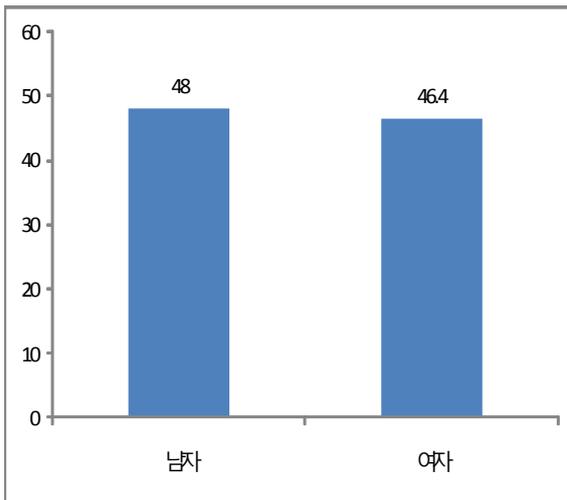
<연령별 스마트지수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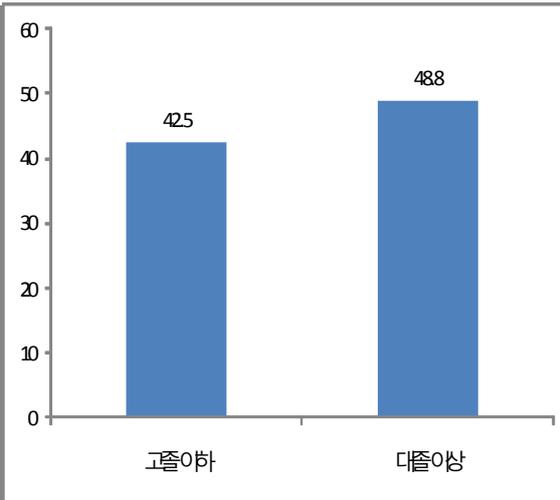
자료)현대경제연구원 2011년 설문조사

- (성별 및 학력별) 여자보다는 남자가, 고졸이하보다는 대졸 이상의 스마트지수 점수가 높음
 - 특히, 대졸이상(48.8점)과 고졸이하(42.5점)의 점수 차이가 6점 이상 나타나 이들 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성별 스마트지수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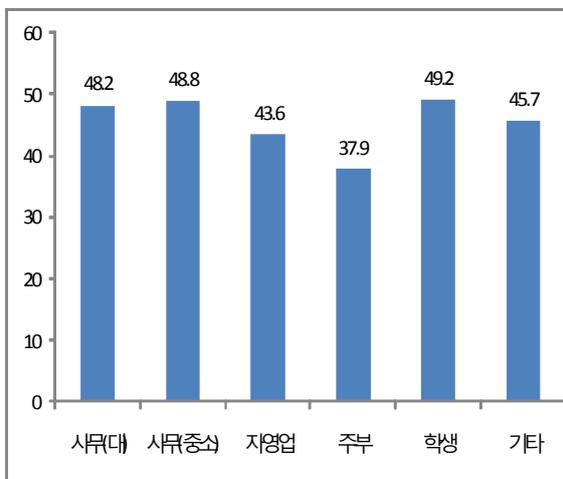
<학력별 스마트지수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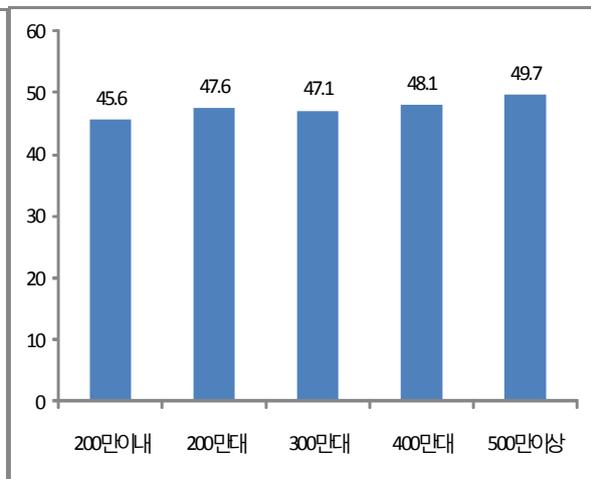
자료)현대경제연구원 2011년 설문조사

- (직업별 및 소득수준별) 직업별로는 자영업자나 주부의 점수가 낮고, 소득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스마트지수 점수가 낮게 나타남
 - 특히, 주부의 경우 스마트지수 점수가 37.9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스마트기기 관점의 항목이나 스마트서비스 관점의 항목 모두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음

<직업별 스마트지수 점수>



<소득별 스마트지수 점수>



자료)현대경제연구원 2011년 설문조사

3. 시사점

- 이번 스마트지수 도출은 국내 스마트화에 대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스마트 관련 현황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스마트 생활 현황을 분석하고, 스마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스마트 관련 산업의 발전전략을 수립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스마트화 현황 점검 및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이번 조사를 통해 점수별 계층별 스마트화 수준의 편차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해 스마트워크, 스마트민원 등 정부 차원의 활용 프로그램 선도

- 스마트기기에 대한 양적 증대보다는 질적 활용 가치 향상을 위해 각 부문별로 스마트서비스 맞춤형 정책 실시해야 함
 - 2011년 6월 이미 스마트폰 가입자는 1500만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2500만이 스마트폰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되어, 태블릿PC 등을 포함하면 전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스마트기기는 활용 여부에 따라 그 효용성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정책적 고려를 보유 기기 확대라는 양적 증대 측면보다는 질적 활용 가치 향상에 우선하는 활용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함
 - 특히 스마트기기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는 스마트워크나 스마트민원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함

○ 둘째, 스마트서비스 활용을 위한 보안기술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

- 스마트서비스 활용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 부문에 있어서 스마트서비스 비이용자가 많다는 점임
 - 스마트기기를 통해 사회적 이슈에 적극 참여하는 개인들의 영향력이 훨씬 커지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개인이 사회 현안에 참여 평균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회적 현안 참여를 위해 스마트서비스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사실은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가 필요함
 - 따라서, 최근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사회적 참여 활동에 대한 맞춤형 유인책을 마련하여 비이용자 계층을 이용자 계층으로 적극

전환시키도록 보완 정책을 적극 마련해야 함

○ 셋째, 활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기존 일인기업 육성 정책과의 적극적 연계

- 스마트기기의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활용가능한 애플리케이션 관련 정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스마트기기의 보유는 향후 상승 추정치로 볼 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스마트기기에 대한 접근성보다 스마트기기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용성 측면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스마트기기의 핵심 요소인 애플리케이션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관련 일인기업 활성화 방안 등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넷째, 스마트 디바이드 극복을 위한 정부, 업계,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스마트디바이드 네트워크' 구축

- 스마트 소외 계층에 대해 스마트기기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기를 보급하고, 활용성 증대를 위해 교육을 지원하는 '스마트디바이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현재 스마트지수가 낮은 계층의 경우 사회적 약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들을 적극 보호하여 이들을 높은 수준의 스마트 소비자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특히, 스마트 시대가 성숙될수록 이러한 계층간의 격차는 모바일 디바이드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훈련을 개발하는 등의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HRI**

장후석 연구위원 (02-2072-6234, chahus@hri.co.kr)

<별첨> 스마트지수 세부 구성 항목 및 비중

- 스마트지수를 구성하는 각 영역의 비중은 크게 기기(제품) 관점 50점과 서비스 관점 50점 등 총 100점을 기준점으로 함

○ 기기 관점: 스마트기기에 대한 접근성 및 수용성(50점)

- 기기 관점에서 측정해야 하는 첫 번째 부문인 접근성은 스마트기기의 네트워크에 대한 각 개인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지표임
 - 스마트기기는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을 때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으므로 각 개인의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며, 주로 정량적 정보로 구성됨
 -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세부 평가 항목은 데이터 접근을 위한 3G 네트워크 접근 형태와 WIFI 네트워크 접속 여부로 평가할 수 있음
- 두 번째 부문인 수용성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어느 정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임
 - 스마트기기는 기존 IT 기기나 휴대폰과 달리 보유가 곧 기기의 활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각종 준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측정해야 함
 - 세부적인 평가 항목은 애플리케이션 설치 능력, 애플리케이션 개수,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간 등으로 평가할 수 있음

<기기 관점 세부 항목 및 비중>

구분	세부 항목	비중
기기	3G 네트워크 접근성	10
	WIFI 네트워크 접근성	10
관점	애플리케이션 설치 수용성	10
	애플리케이션 개수	10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간	10

- 다만 현 스마트지수 평가에서는 스마트기기의 경우 현재 널리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 폰, 스마트패드 등 스마트 플레이어, 스마트 TV를 중심으로 평가함⁴⁾

스마트세상, 우리는 과연 얼마나 스마트해졌나?

- 향후 스마트 가전,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홈·빌딩·도시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측정 시점에 적절한 항목을 추가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관점: 스마트 서비스 활용 정도(50점)

-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스마트 서비스를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임
 - 이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실제 생활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대인간의 관계 교류가 증대하며, 사회적 현안 참여가 높아지는 측면에서 스마트 서비스의 활용성을 평가함
 - 구체적 항목으로는 전자상거래 등의 경제활동, 문화 및 정보 획득 활동, 인맥관리 등 교류활동, 사회 현안 참여 활동, LBS 활용 등으로 구분됨

<스마트서비스 활용 세부 항목 및 비중>

구분	세부 항목	비중
서비스	경제 활동 부문	10
	문화 및 정보 획득 부문	10
	인맥관리 등 교류활동 부문	10
관점	사회 현안 참여 부문	10
	LBS 활용 부문	10

4)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최근 도입되는 4G 등의 경우 현 설문에 의해 충분히 반영가능함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09 ^P	2010 ^P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 ^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0.3	8.5	7.5	4.4	4.7	6.2	4.2	3.4	4.3	
	민간소비 (%)	0.0	6.6	3.5	3.6	2.9	4.1	2.8	3.1	3.8	
	건설투자 (%)	3.4	4.3	-2.3	-3.1	-2.9	-1.4	-11.9	-8.6	-0.8	
	설비투자 (%)	-9.8	29.1	30.5	26.6	15.9	25.0	11.7	7.6	8.5	
대 외 거 래	경상수지(억 \$)	328	3	89	99	92	282	26	65	148	
	통 관 기 준	무역수지(억 \$)	404	29	146	106	130	412	74	100	310
		수출(억 \$)	3,635	1,011	1,202	1,163	1,287	4,664	1,310	1,443	5,434
		증감률 (%)	(-13.9)	(35.8)	(33.1)	(22.7)	(23.8)	(28.3)	(29.6)	(20.0)	(16.5)
		수입(억 \$)	3,231	982	1,056	1,507	1,157	4,252	1,236	1,344	5,124
		증감률 (%)	(-25.8)	(37.4)	(42.8)	(24.6)	(24.6)	(31.6)	(25.9)	(27.2)	(20.5)
소비자물가 상승률 (%)	2.8	2.7	2.6	2.9	3.6	2.9	4.5	4.2	4.0		
실업률 (%)	3.6	4.7	3.5	3.5	3.3	3.7	4.2	3.4	3.6		
국고채수익률 (3년물, 평균, %)	4.0	4.1	3.7	3.7	3.3	3.7	3.8	3.7	4.1		
웬달러 환율(평균, 원)	1,276	1,143	1,165	1,184	1,132	1,156	1,120	1,083	1,070		

주: P(Preliminary)는 잠정실적치, E(Expectation)는 전망치.